

특집 현대문학에 나타난 제국주의와 여성수난

한국문학에서 제국주의와 여성

- 김정한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상경

국문초록

최근 한국 여성학계에서는 여성과 민족 담론 사이의 갈등과 조화를 둘러싼 논의가 분분하다. 민족 담론이 여성에 대한 성적 억압을 민족 수난의 상징으로 보편화시킴으로써 여성 경험의 특수성을 부인한다고 갈등을 강조하는 측과 민족 의식과 여성역사의 협력적 관계에 주목하는 측이 있다. 이 논란은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제기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해결 방안을 설명하는 방식을 둘러싸고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여성학계에서 논의되는 바, 진정한 페미니즘은 근대 국민국가를 넘어서야 한다는 입장은 민족과 계급 등에 따라 여성의 경험이 다른 다양한 여성 현실을 단일화시킬 위험이 있다. 즉 여성의 종속이라는 일반적 관념에 근거하여 여성이라는 비역사적 보편적 실체를 가정하고 민족이나 계급이 다른 여성들 사이의 차이를 몰각할 수 있기에 한국여성의 삶의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여성역사와 민족역사의 상호 연관성을 밝히는 것은 현금 여성 운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 문학과 민족문학의 상호 관계를 자리 매김하는 데 필요한 일이다.

이 연구는 1970년대 민족문학의 대표적 작가로 평가되는 김정한의 작품을 통해서 여성 의식과 민족의식이 어떻게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상호 긍정적 작용을 하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김정한은 누구보다도 뚜렷한 민족의식의 소유자로서 친일과 반일의 역사적 맥락에서

해방 전과 해방 후의 남한 사회의 문제를 즐겨 다루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수라도」와 「오기나와에서 온 편지」는 민족과 계급, 그리고 여성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보면서 특별히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주목한 작품이다. 제국주의의 여성 억압과 그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여성 주체가 형성되는 경험을 재구성하고, 작가의 민족의식이 문학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역사와 현재성을 탐구하는 것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분석해 보니, 한국에서 여성 의식과 민족 의식은 배타적이기 보다는 상호 상승 작용하는 측면이 강했다.

이 연구를 통해서 김정환 작품에서 드러나는 바 여성과 민족 담론의 관계는 민족문화와 여성문학을 상호 관련 속에서 고찰하고 평가하는 데 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김정환, 수라도, 민족 담론과 여성, 일본군 위안부, 오기나와에서 온 편지

1. 머리말

한국문학에서 제국주의와 여성이란 제목을 앞에 놓고 나는 우선 남정현의 「분지」나 천승세의 「황구의 비명」을 떠올렸다. 미군에게 강간을 당하거나 혹은 미군을 상대로 매춘을 하는 한국 여성의 현실을 미국과의 관계에서 억압되어 있는 민족의 현실에 비유하거나 상징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들 작품을 놓고서는 억압된 민족현실의 비유적 재현으로 높이 평가하거나 그 여성이 겪고 있는 성적 억압의 경험을 부인한 반여성적 문학으로 비판하는 두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소시민 한국 남성이 동두천 미군 기지촌에서 섬돌에 놓인 국산 고무신과 미제 워커의 부조화에서 황구와 세퍼드의 교미를 연상하고, 그에 대비하여 고무신과 짚신이라든지 황구는 황구끼리라는 상상을 하는 「황구의 비명」은 문학에서 제국주의와 여성의 문제를 다루는 경우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제국주의 미국에 짓밟히는 우리의 '누이' 만 보고 한국 사회의 하층에서 빈곤에 떠밀려 미군 부대 주변의 기지촌에서 '양공주'가 된 여성의 구체적 삶, 같은 민족의 남성이 여성 사이에 행해지는 매매춘이나 성폭력의 문제는 보지 못하는 것이다.¹⁾

그러나 문학사 내적인 흐름에서 본다면「분지」가 불러일으킨 필화 사건이 웅변하듯이 이러한 비유는 당대 사회의 금기를 깨뜨리는 문학적 방법이기도 했다. 즉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 누구도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엄혹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그것을 우회하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민족 수난의 상징으로서 수난 받는 여성이라는 문학적 관습의 강력함과 그 반여성적 측면을 보아내는 것은 언제나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이들 작품은 동 시기 민족적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다른 많은 작품들이 여성을 남성의 성욕 해소의 도구, 혹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 또는 자기 의지라고는 조금도 없는 인형 같은 인물로 그린 것에 비하면, 돌아갈 고향이 없다. 미자의 절박한 말로 소시민 남성의 허위 의식을 드러내고 미자의 삶을 따뜻한 눈으로 보아낸다든지, 어머니의 광기 속에서 강간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민족 담론이 구체적 여성의 경험이 드러나고 여성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읽어내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특히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둘러싸고 욕망과 폭력 사이의 딜레마를 얘기하는 지점에 온다면²⁾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만으로 여성의식을 논하는 것은 여성의 삶을 결정하는 다른 많은 요소를 몰각할 우려도 있다.

최근 한국 여성학계에서는 여성과 민족 담론 사이의 갈등과 조화를 둘러싼 논의가 분분하다. 민족 담론이 여성에 대한 성적 억압을 민족 수난의 상징으로 보편화시킴으로써 여성경험의 특수성을 부인한다고 갈등을 강조하는 측³⁾과 민족의식과 여성의식의 협력적 관계에 주목하는 측이 있다. 이 논란은

-
- 1)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정은희 외,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문학의 현실」, 『여성』 1(창작과비평사, 1985), 참조.
 - 2) 신상숙, 「성폭력의 의미 구성과 성적 자기 결정권의 딜레마」, 『여성과사회』13(창작과비평사, 2001년 하반기); 김신현경,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 욕망과 폭력 사이?」, 같은 책.
 - 3) 대표적인 논의로는 김은실, 「민족 담론과 여성」, 『한국여성학』10 (한국여성학회, 1994)가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제기된 일본군 위안부⁴⁾ 문제의 본질과 해결 방안을 설명하는 방식을 둘러싸고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⁵⁾

여성이 근대 국민국가와 맺는 관계에 대한 이론적 성찰로부터, 여성의 국민화를 지향하던 국가의 여성화를 지향하던 여성과 국민국가는 적대적이고 진정한 페미니즘은 근대 국민국가를 넘어서야 한다는 입장이 민족 담론과 여성의 관계에 반성적 성찰을 하게 하지만⁶⁾ 그것이 민족과 계급 등에 따라 경험이 다른 다양한 여성 현실을 단일화시킬 위험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즉 여성의 종속이라는 일반적 관념에 근거하여 여성이라는 비역사적 보편적 실체를 가정하고 민족이나 계급이 다른 여성들 사이의 차이를 몰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⁷⁾ 그리하여 민족, 여성, 계급을 통합해서 보는 시각이 당위론으로 요청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 요소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

4) 이에 대해 역사적으로는 '여자정신대', '종군위안부' 등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일본 제국주의에의 헌신(정신)이라는지 일본 군대의 군속(종군)이라든지 일본군인 남성의 만족(위안)이라는 입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개념적 용어로는 적당하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성적 서비스를 강요한 행위라는 점에서 '성노예'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엔 등 국제활동의 장에서는 특히 그러하다(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 국제 법정). 그러나 '성노예'는 일반적인 매춘이나 전시 강간과는 구별되는, 제국주의 일본이 피식민지 조선의 여성들에게 정책적으로 행한 범죄라는 역사적 특수성은 드러내지 못하며,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역사적으로 노예는 이미 다 해방되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문제 제기성이 약하다는 관점도 있다. 그 대안으로 <일본군 위안부>, <조선인 군위안부>, <일본군 성노예>, <군위안부>라는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문제의 역사성과 현재성을 두루 아우르고 있다고 생각되는 <일본군 위안부>를 사용한다. 명칭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강만길, 『일본군 위안부의 개념과 호칭 문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조사연구위원회 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역사비평사, 1997) 참조; 한국정신대연구소, 『할머니 군위안부가 뭐예요?』, 한겨레신문사, 2000; 도즈카 에츠로, 박홍규 편역, 『위안부가 아니라 성노예이다』(소나무, 2001)을 참조.

5) 이에 대한 논의의 전개 과정은 정진성, 「민족 및 민족주의에 관한 한국여성학의 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제15권 2호(한국여성학회, 1999)에 정리되어 있다.

6) 우에노 치즈코, 이선이 역, 『내셔널리즘과 젠더』(박종철출판사, 1999).

체적인 분석을 통해 내적인 연관을 가진 것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해방 후 남한에서 활동한 작가 중, 한국 사회 내에서의 친일과 반일의 역사적 맥락에서 민족과 여성, 계급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김정한의 작품에서 그 통합의 구체적 맥락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별히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수라도」(1969)와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1977)에 주목하여, 작품 속에서 제국주의와 그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여성 주체가 형성되는 경험을 읽어내고 또한 작가의 민족의식이 문학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와 현재성을 탐구하는 것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2. 김정han과 민족문학

김정han은 제국주의 억압과 냉전적 분단 현실을 뛰어난 역사의식으로 비판적으로 그려내면서 일제 시대의 민족문학의 전통을 잇고 있는 작가이다. 1930년대 중반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나 일제의 파시즘이 강화된 시기였기에 본격적으로 작품을 쓰고 발표하지는 못했다. 해방 후에도 정치적 활동으로 고초를 겪었던 그는 1966년 「모래톱 이야기」를 발표하면서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김정han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는 농민작가, 리얼리즘 작가, 산업화의 부정적 측면을 파헤친 작가라는 등의 평가가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해방 후 남

7) 서구 중심의 페미니즘이 이런 방식으로 제3세계 여성에 대해 행하는 과도한 추상화에 대한 비판은 잔드라 모헨티, 「서구인의 눈으로: 페미니즘 연구와 식민 담론」, 유제분 편, 『탈식민페미니즘과 탈식민페미니스트들』(현대미학사, 2001)에서 적극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일제 말기 군국주의가 강화되면서 일본 제국주의가 일본 여성과 식민지 조선의 여성에게 기대한 역할과 취한 정책, 그 여성들이 처한 상황이 달랐음을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로는 河かおる, 「總力戰下の朝鮮女性」, 『歴史評論』 NO.612 (校倉書房, 2001, 4)이 있다.

한 사회에서 친일과 반일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작가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해방 직후의 어지러운 정치 상황에서 친일 세력이 청산되기는커녕 친일 세력은 반공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반민특위가 해체되고 6.25를 거치면서 남한 사회에서 친일과 청산의 문제는 반공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일종의 사회적 금기가 되고 말았다. 침묵을 지키던 김정환 이 1966년에 다시 붓을 잡고 발표하게 된 것은 1965년에 이루어진 한일협정과 월남 파병 결정에 촉발된 결정으로 보인다. 박정희 정권이 집권 이후 일본과 외교 관계를 트고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얻기 위해 한일 회담을 열었을 때, 굴욕적인 한일 회담에 반대하는 운동이 학생과 시민들 사이에 거세게 일어났다. 1964년의 6.3 사태까지 이야기하고 정권은 1965년 한일협정을 국회에서 비준시켰다. 이런 현실 앞에서 김정환은 자기가 체험한 일제 말기의 상황을 증언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그는 진실이 버려진 것에 대해 울분을 느끼면서 우리 사회의 기막힌 사연들을 파헤치는 것을 작가적 사명으로 삼는다고 작품 재개의 변을 밝힌 바 있다.

이십년이 넘도록 내쳐 붓을 꺾어오던 내가 새삼 이런 글을 꺾적거리게 된 건…… 이들에 관한 그 기막힌 사연들조차, 마치 지나가는 남의 땅 이야기나,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세상에서 버려져 있는 데 대해서까지는 차마 묵묵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다.⁸⁾

또한 그런 의미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하나 친일 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채 반공을 무기로 한 독재체제가 지배하는 남한 사회의 억압적 상황하에서 금기처럼 되어 있던 일제말의 친일의 문제를 김정환은 작품을 통해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수라도」(1969), 「지옥변」(1970), 「사밭재」(1971), 「산서동

8) 김정환, 「모래톱 이야기」, 『낙동강 2 - 김정환 자선 대표작』(시와 사회사, 1994), p.11. 이하 김정환 작품의 인용은 이 책에 의하고 페이지만 밝힌다.

뒷이야기」(1971), 「회나뭇골 사람들」(1973), 「위치」(1975),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1977)등이 모두 일제 말기 식민지 조선에서 벌어졌던 일본 제국주의와 반일세력 사이의 갈등과 그 이후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소설의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들 작품 중 「수라도」와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에서 1990년대 들어서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주목을 받았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찍이 진지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의외이지는 않다.⁹⁾

김정환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독자들이 제국주의의 억압과 그에 맞서는 민족의식의 구도 속에서 일제 말기의 경험에 접하기를 의도했다. 그리고 작품이 발표된 시점에서 본다면 버려진 이야기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두 작품 외에도 「지옥변」은 강제 징용 문제를, 「사뱃재」는 학병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지금 2001년의 시점에서 우리는 그 경험에 접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¹⁰⁾ 작품에서 어떤 경험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주목하여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민족의식과 여성이식이 어떻게 통합적으로 구현되는가를 읽고자 한다.

3. 제국주의와 여성주체의 형성 : 「수라도」

1) 민족문학과 여성문학

「수라도」는 김정환이 작품 활동을 재개한 뒤 반일과 친일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첫 작품이다. 소설에서 가야 부인의 시아버지 오봉 선생은 허씨

9) 오히려 그 동안의 김정환 연구에서 이 문제에 주목을 하지 않은 것이 더 놀랍다고 해야 할 것이다.

10) 한국 여성의 일본군 ‘위안부’ 경험에 대한 증언집이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들」이란 제목으로 4권까지 출간되었고 그 밖의 연구서들도 많이 나왔다.

집안의 중심으로 선명한 민족 의식의 소유자이다. 오봉 선생의 아버지는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었고 둘째 아들은 삼일운동 때 일제의 총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허씨 집안은 가세도 기울었다. 오봉 선생의 반대편에는 오봉 선생의 친구 격인 이와모도 참봉이 있다. 그는 합방 때 일제의 편에 붙어 합방 은사금을 받았고 그 아들은 도경 고등계 경부보이며, 조키는 구장 노릇을 한다. 이와모도 참봉의 집에 드나드는 손님이라는 것도 순사나 면서기들이며, 그들은 상손님 노릇을 한다. 「수라도」는 두 집안을 대비시키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고 소설의 마지막부분은 해방이 되어서도 허씨 집안은 전혀 ‘해방 덕’을 보지 못한 반면 이와모도 집안은 경부보였던 아들이 국회의원으로까지 되었다는 우울한 대비로 마무리된다.

「수라도」가 제목으로 삼고 있는 ‘아수라장’은 일본 제국주의, 민족의식, 샤머니즘, 민중불교, 유교적 가부장제, 반상의식, 그리고 자율적 존재로서의 여성 의식 등이 서로 갈등하는 현장이다. 이 두 집안의 대비에서 민족문학의 성취를 읽어내는 것이 일반적인 독서방식이다. 그럴 때 오봉 선생의 ‘척사위정파’ 적인 성격이 부각되며 가야 부인은 민족의 수난의 역사의 상징, 민중의 불굴의 생명력의 상징이 된다.¹¹⁾ 또한 척사위정파 오봉선생이 가진 한계에 대한 내안으로서 가야부인이 제시된다.¹²⁾

그러나 이러한 독해는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하에서 양반 가문의 며느리로 살아야 했던 가야 부인의 여성으로서의 삶의 구체성을 사상하기 십상이다. 제국주의와 여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작품은 가야부인 같은 새로

11) 가령 다음과 같은 평가가 그 한 예이다.

“가야부인은 (……) 전통적인 부덕과 근면함으로 집안의 화목을 유지해 나간다. 이 때문에 가야부인의 일생은 민족의 수난의 역사로 그 의미가 확대되는 것이다.(……) 가야부인의 이 소박하고 건강한 삶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도, 시아버지로 대변되는 가부장적 권위도, 사위 박서방과 옥이의 결혼 사건에서 보듯이 봉건적인 제도도, 모두 극복해낸다(……) 민중의 불굴의 생명력으로 형상화한다.” 이기인, 「김정한 소설의 심미성과 작가 의식」, 『작가연구』 4 (새미, 1997), pp.86~87.

12) 백낙청, 『민족문학의 현단계』, 『민족문학과 세계문학』2(창작과비평사, 1985).

운 여성 인물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고 그러한 여성 주체의 형성은 민족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¹³⁾

가야 부인이 허씨 집안에 시집와서 죽기까지의 일생에서 핵심이 되는 삽화는 세 가지이다. 시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륵당을 세우는 것, 친일파 이와모도 집안과 무당 천금새에 맞서는 것, 그리고 정신대에 끌려갈 뻔한 옥이를 구출하는 것이다. 가야부인은 그 이수라장을 헤쳐 나오면서 여성으로서의 자기를 찾게 되고 '가모'가 되었다. 아들이 만세통에 총맞아 죽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살림에 손을 놓았고 오봉 선생은 돌부처 같아졌다. 남편인 명호 양반은 대소사의 눈치나 살피며 자기 주장을 내놓지 못하는 순한 인물일 뿐이다. 이런 기울어 가는 집안에서 각종의 위기 상황을 며느리인 가야부인이 극복하고 이 과정에서 시아버지도 자기의 아내나 아들은 져혀두고 며느리를 가장 신뢰하게 된다.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가느라 가야 부인은 하지 않던 허드렛일까지 하며 고생을 하지만이 과정을 통해서 가야 부인은 시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하층 사람들과의 유대도 넓혀 나간다. 한 집안의 경제권을 가짐으로써 발언권을 높여가서 오봉 선생이 반대하던 미륵당도 세우고, 미륵당에 위안을 구해 모여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지주 역할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가야 부인 자신도 직접 일제의 지배자와 맞서면서 자기 속에 있는 가부장적 의식을 극복하게 된다. 오봉 선생 면회를 위해 남녀간에 내외하는 풍습을 깨뜨리고 '외간 남자'인 이와모도참봉과 나란히 기차를 타는 일도 해내었고, 재판정에서 간수에게 대들기도 한다. 이와모도 참봉은 가야 부인에게 생색을 내려던 일이 아들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그 동티로 끝내 죽고 만다. 무당 천금새의 기만과 반민증성도 넘어선다. 미륵당을 짓기

13) 이런 측면에 대한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연구들은 구체적인 분석을 수반하지 않았으며 특히 민족의식과 여성의식의 연관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백낙청, 「문화연구의 자세와 민족문학」, 『민족문학과 세계문학』1(창작과비평사, 1978).

시작했기 때문에 용신님의 동티로 오봉 선생이 죽었다 소리를 무당 천금새가 퍼뜨리고 다니자 가야 부인은 “미친 것들! 만주가 돌아가신 시아버님도 절을 지어서 그렇고, 만세 부르다 생죽음을 당한 우리 밀양 시숙도 절 때문에 그랬던강?”¹⁴⁾ 하며 일축한다. 부처님이든 용신이든 신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지배자 일제가 문제라는 민족의식과 근대적 합리주의로 우매함과 중상모략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런 가야 부인의 면모에 대해 양반 집안의 며느리는 지배층의 일원이면서 그 집안에서는 피지배층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민중적 시각을 획득할 수 있고 이것이 가야 부인이라는 ‘가모장(家母長)’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설명 방식이 일반적이다.¹⁵⁾ 그런데 가야 부인의 경우, 한 집안에서 여성에 대한 억압으로 작용하는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남편의 외도라든지,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못 낳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보통 며느리들이 시집안에서 피억압자로서의 지위를 자기확인 하게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지는 않다. 그렇다고 특별하게 남편을 내조하고 자식들을 잘 키워내는 ‘양처현모’의 모습도 부각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야 부인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 그것은 큰 범주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에 의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저항을 통해 가야 부인은 여성의 자결권을 추구하는 신여성도 아니고, 인고하는 구여성도 아니고, ‘억척 어멈’도 아니고, 현모양처도 아닌, 한국문학사에서 새로운 여성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이다.

2) 가부장에 맞서는 ‘자매애’

오봉 선생과 가야 부인은 일본 제국주의를 미워하고 거기에 저항한다는 점에서는 생각을 같이하지만 일상 생활에서 서로 일치한 것은 아니다. 여성으로서 가야부인이 시집에서 맞부딪친 가장 큰 장애물은 시아버지 오봉 선생이다.

14) 『낙동강』2, p.195.

15) 백낙청, 앞의 논문에서 제시된 이래 많은 논자들이 수용하는 견해이다.

오봉 선생은 유교 도덕을 내면화한 가부장이다. 아내도 아들도 그를 거스리지 못한다. 그러나 가세가 몰락하고 가야부인이 살림살이를 꾸려 가면서는 그 호통 소리가 줄어든다. 이웃집 부인네들이 안마당에 와서 자고 있는 상스러운 풍경을 보고도 그들이 며느리의 손님임을 알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가야 부인은 시아버지를 공경하면서도 자기하고 싶은 일은 한다. 그것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 것이 미륵당을 지은 일이다.

처음에는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가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절에 가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시쫓돈을 드려 가며 절 구경을 가게 했다.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 남편을 잃은 동서가 함께 절에 가서 마음의 위안을 찾도록 가야 부인은 오봉 선생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 곳에는 모두 남의 가문에 시집온 여성으로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이 앞선다.

“아버지의 성 하나 타 가지고 남의 가문에 와서 ‘삼종지례 ‘니 ‘칠거지악’이니 하는 무쇠 같은 유교의 계율에만 억눌려 사는 멀쩡한 노예”(p.162.)로서의 처지에 가야 부인과 시어머니, 동서가 모두 공감을 하고, 그 공감을 바탕으로 미륵당을 짓는 일에서 시아버지와의 대립을 극복하는 것이다.

가야 부인은 땅에 묻힌 돌부처를 발견하고 부처님을 모실 절을 짓고 싶어했다. 생전 시아버지 앞에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던 시어머니까지 나섰는데도 오봉 선생이 호통을 치며 거부하자 그날 가야 부인은 중이 되려고 결심을 한다.

허씨 가문을 위해서는 자기로선 할 만큼은 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지막 조그만 소원 - 땅에 묻혀 있는 부처 하나 꺼내는 일까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억울한 일이었다. 여지껏 애써 살아온 보람,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고작 그것뿐인가 생각하면 어떤 의미로는 분하기까지 하였다.(p.172.)

이 ‘억울함’과 ‘분함’은 그 동안 양반 가문의 며느리로 굶은 일을 쳐내면서도 느끼지 않았던 감정이었다. 허씨 가문의 가치를 내면화했던 가야부인

이 억압받는 여성으로서의 자기의 처지를 깨닫게 된 것이다. 그래서 가야부인은 집을 나와 사위 집에 머물면서 절을 세우게 된다. 시집 바깥에서 밤을 보낸 첫날은 “어느 때와는 다른 새로운 날”(p.173.)이었다. 허씨 가문의 며느리 가야 부인이 자기 욕망을 가진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으로서 주체성을 가지고 새롭게 서는 날이었다.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것은 가야 부인의 홀로 서기에 결정적 동력으로 작용하는 ‘불심’ 이 오봉 선생의 유교를 넘어서는 것은 ‘민족 의식’에 의해서라는 점이다. 오봉 선생은 가야부인이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가 꾸린 ‘승병’을 내세우자 더 이상 내놓고 반대하지 못했다. 민족의식을 방패로 가야 부인의 불심은 오봉 선생의 유교와 맞서게 되고 이로서 가야 부인은 시아버지로부터 독립한 새로운 주체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작품이 민족문학 이면서 동시에 여성문학일 수 있는 지점이다.

결국 오봉 선생은 죽기 전에, “다들 듣거라, 명호 메누리가 이 집안에서는 제일 큰 어른이데! 그 어른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p.184.)라고 가모장으로서의 가야 부인의 위치를 확인해 준다. 그리고 가야 부인에게, “공자의 인(仁)이나 석가의 자비심이 (……) 근본에 있어서 같다고 했제?”(p.184.)라고 지기의 죽음 뒤를 부탁한다. 그리고 가야 부인은 미륵당에 오봉 선생의 영가를 모시는 것으로 자기의 불심을 관철한다.

이 절을 세우는 일에는 그밖에도 여성주의적인 요소가 곳곳에 있다. 오봉 선생의 호통 소리를 듣고 가야 부인이 한밤중에 딸의 가채 옆에 가서 밤을 새운다든가, 끝내 불사를 허락하지 않는 시아버지 앞을 물러 나와 딸의 시체를 불교식으로 화장을 하고 사위 집에 눌러 앉아 시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식으로, 앞으로는 양반 가문의 법도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위에 놓겠다는 시위를 벌인 것이다. 절을 짓고 부처님을 모시는 일은 사위의 도움으로 진행이 된다. 그 사위도 ‘내 처를 위해서 내가 절을 짓는다’는 말로 자기 집안이 나 주위의 반대를 물리쳐 버린다. 어머니와 딸(사위)로 이어진 불심은 소설 초두에 가야 부인이 손녀인 분이를 ‘우리 부처 새끼’라고 지칭하는 데서 모

계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은 미륵당은 여자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는 심터 같은 곳이 되었다.¹⁶⁾

(……) 손자녀를, 자식을, 남편을, 딸을 그렇게 빼앗긴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아내들은 태고

나루에서 눈물짓다가 가까운 미륵당을 찾기 일쑤였다. “명천 하느님요!” 하고 땅을 치던 그들은 말없는 미륵불 앞에 엎드려 떠난 아들 딸들이 무사히 살아 돌아 오기를 빌고 또 비는 것이었다.

(p.202.)

무슨 기도를 드려 소원 성취를 한다기보다 아들, 딸, 남편, 손자녀를 억울하게 빼앗긴 그녀들은 거기서 어떤 마음의 위안을 얻곤 하였다. 그래서 특별한 불사가 없는 날에도 할머니들은 곧잘 모여들었다. 대밭각단 양 접장의 할머니도 손자가 학병에 끌려가 죽은 뒤부터는 역시 미륵당에 나왔다.(p.203.)

이런 여성들의 공동체, 사랑방 같은 미륵당은 오봉 선생의 전통적인 유교 정신을 넘어 섰을 뿐만 아니라 전통 시대 억눌린 여성들을 위로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기만했던 무당 천금세의 비합리성까지 넘어선다. 미륵당은 위안을 구하는 사람에게 시춧돈을 강요하지 않았다.

3) 민중의 수난과 일본군 ‘위안부’

일제에 저항하면서 가야 부인은 봉건적인 신분차별 의식을 넘어 선다. 허드렛일을 직접 할 수밖에 없이 되어 그러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일반 여성들과 교류를 넓혀 가면서 그리 되었다. 미륵당을 짓고서는 가족을 빼앗긴 다른 여성들과 아픔을 같이하면서 동질화되어 갔다. 그것이 극적으로 구현 되는 자리가 바로 옥이의 정신대 징용 사건이라는 점은 새삼 눈여겨보아야

16) 김경원, 「리얼리즘 문학의 공간성과 역사성」, 『작가연구』4, p.63.

한다.

옥이는 가야 부인의 몸종이지만 가야 부인은 그녀를 양딸처럼 길러 왔다. 그래서 혼처가 걱정되었다는 말로 징용 대상에서 빼돌리려는데 종의 딸이라는 신분 때문에 마땅하게 결혼을 시키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결국 옥이에게 징용 영장이 나온 것이다.

“이번에는 할 수 없입데잇! 그래 아이소.”

애국반장이란 사람이 하고 간 말.

“너무 버투지 마소. 그란이라도 의심을 받고 있는 집에서……”

이건 이와모도 참봉의 조카뻘인 구장이 하고 와서 간, 반 협박조의 소리다. 그 움두꺼비 같은 구장이 언제 옥이의 징용 영장을 들고 올는지 모를 일이었다. 속칭 ‘처녀 공출’이란 것으로서 마치 물건처럼 지방별로 할당이 되어 왔다. 저희들 말로는 전력 증강을 위한 ‘여자정신대원(女子挺身隊員)’이란 것인데, 일본 ‘시즈 오키’ 라던가 어딘가에 있는, 비행기 낙하산 만드는 공장과 또 무슨 군수공장에 취직을 시킨다고 했었지만, 막상 간 사람들로부터 새어나온 소식에 의하면, 모조리 일본 병정들의 위안부로 중국 남쪽 지방으로 끌려갔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기만과 강제에 의한 그들의 전쟁 희생물이었다 어리석고 가난하고 힘없는 식민지 농민들의 딸들은 그렇게 끌려 가게 마련이었다.(p.205.)

‘정신대’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기만하고, 허씨 집안이 항일 운동을 했다는 것을 내세워서 위협을 하고, 옥이가 종의 딸이기에 저항이 크지 않을 것을 알고 강제로 끌고 가려 한 것이다.

1969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처녀징용’에 대해 ‘정신대’와 ‘위안부’라는 용어를 함께 쓰고 있다. “여자 정신대원! 일본 병정의 위안부!”(p.207.)이라는 표현은 여러 번 나온다.¹⁷⁾ 전쟁이 일본의 패배로 끝난 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데 공헌한 센다 카코우의 글¹⁸⁾이 일본에서 나온 것이 1973년 임을 감안하면¹⁹⁾, 그 이전에 이미 작가 김정한은 이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에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실상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그 시대를 살아 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과 압박에 내어 공포하는 것은 다르다. 또한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하느냐에 그 내용이 달라진다. 일본에서는 전쟁 경험을 회고하는 각종 기록에 '위안소'를 이용한 사실이 등장했지만 아무도 일본군 '위안부' 들의 운명에 주목하지는 않았다. 그것을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은 센다 카코우의 책이었는데 아직 일본군 '위안부' 들을 동정하는 입장에 머물러 있었고, '범죄의 피해자'로 개념의 전복을 가져온 것은 1991년 12월의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이었다. 필자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김정한의 「수라도」는 우리나라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처음으로 공적으로 제기한 작품이다. 이전의 문학 작품이나 다른 기록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없는 듯하다.²⁰

일본군 '위안부' 연행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이들은 면서기, 구장, 그리고 순사 부장이고 순사부장은 공출된 처녀들이 '제국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는 격려사를 늘어놓는다.

17)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용어를 구사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론적으로는 여자 정신대는 일본 제국주의가 노동력을 법령을 통해 공식적으로 징용한 것을 가리키고, '위안부'는 비공식적으로 행해진 것인데, 이 일을 회상하는 한국 사람들은 여자정신대는 곧 일본군 '위안부'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 문제에 일본 국가가 개입한 것의 반증이 된다고 한다(강만길, 앞의 논문 참고). 일제 말기를 살아온 김정한이 1969년의 작품에 이렇게 쓴 것도 그러한 인식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18) 센다 카코우(千田夏光)의 『從軍慰安婦』는 1973년 일본의 双葉社에서 처음 출간되었다고 한다. 요시미 요시아키, 이규태 역, 『일본군 군대위안부』(소화, 1998), p.259. 참고.

19) 한국 여성운동계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규명하고자 시작한 것도 이 책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한다. 「여성과 사회가 만난 사람: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전 공동대표 윤정옥」, 『여성과사회』13 (창작과비평사, 2001 하반기), p.112.

20) 해방 직후인 1946년 그들이 돌아왔다는 짙박한 신문 보도는 있었다. 그 이후로는 언급되지 않았다.

‘히노마루’가 높다랗게 강바람을 맞아 펄럭이는 동사 앞뜰에는 옥이말고도 여섯명의 처녀가 나와 있었다. 배를 타야 할 태고나루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라, 오봉산 밑 열두 부락의 해당자들이 모두 거기에 모였던 것이다. 그들 도합 일곱 명을 위한 전승꾼과 구경꾼이 줄잡아도 사오십명은 되어 보였다. 그 열두 부락의 대표이거나 한 듯이 이와모도 구장이 시종 앞장을 서서 서둘렀다. 숫제 학교 선생님 처럼 고작 일곱 사람을 앞에 두고 줄을 지어 서라느니, 면서기가 나누어 준 ‘히노마루’가 박힌 수건을 어서 이마에 동이라느니, 혼자서 야단을 빼듯 했다. 그것을 지극히 만족스 럽게 바라보고 있던, 긴 칼을 허리에 찬 순사부장이 드디어 출발에 즈음한 인사말을 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제국을 위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여러분만의 명예가 아니라, 한편 이 지방의 자랑입니다!……”(p.213.)

이렇게 옥이에게 영장이 나오자 가야 부인은 ‘왜놈에 대한 증오’가 불타 올랐지만 그 신분의 벽을 쉽게 넘어서지 못한다. 옥이의 징용 문제가 대두 되었을 때 이미 박서방이 옥이와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가야부인은 선뜻 찬성을 하지 못했다. 엄격한 신분 차별 의식에서 아직 다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옥이 역시 온근히 기대를 허다기 영장을 받고 나지 절망하고 자살을 시도한다. “옥이는 버티어 보았다. 하지만(……)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종의 딸이었다.”(p.210.) 이 문제는 옥이가 배를 타기 직전, 박서방이 혼인 증명서를 만들어 나루터에 뛰어오므로 해서 해결이 난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야기된 갈등, 그것을 증폭시킨 신분 갈등은 민족의식 안에서 해소된다. 반상을 차별하는 의식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 앞에서 사라진다. 친일과 반일의 구도는 양반 집안에 남아 있는 엄격한 신분의식을 뛰어넘게 하는 힘이 되었다. 그러나 작가는 무조건적인 민족의식으로 다른 모든 것은 거기에 복속시키지는 않는다. 가야 부인의 망설임, 박서방의 열린 마음과 옥이에 대한 사랑을 복선으로 깔아둠으로써 도식성에 빠지지 않았다. 박서방은 이미 아내에 대한 애정

과 장모의 불심에 화답하여 미륵당을 짓는 데서 일정하게 가부장제의 편견에서 벗어난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준비되어 있었기에 옥이는 정신대로 끌려가는 것을 면하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이 삽화 자체는 지금 우리에게 드러난 바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과 비교하면 ‘행복한 결말’이지만, 작가는 이 삽화를 제시함으로써 해서 몸종이라든지 하는 하층 계급의 여성에게 징용 영장이 집중적으로 나왔다는 것 (손녀인 분이는 이 정신대 영장에 관계가 없다), 강제와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정신대 징용 곧 처녀 공출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무하고라도 결혼을 하는 풍조가 만연했다는 사실을 힘주어 드러내었던 것이다. 그리고 해방 후에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까지.

가야 부인의 (……) 아직 신통한 해방덕을 못보았다. 첫째 징용에 끌려간 사람들이 제대로 돌아오질 않았다. 어찌다가 돌아오는 사람은 거지가 되어오거나 병신이 되어 왔다. 더구나 ‘여자 정신대’에 나간 처녀들은 한 사람도 돌아오질 않았다. 설마? 하고 기다리는 판이었다. 그래서 부락들은 역시 걱정에 싸여 있는 셈이었다. 그러나 한편 불행하리라 믿었던 이와모도 참봉의 집은 반대로 활짝 꽃이 피어갔다. 고등계 경보부로 있던 맏아들은 (……) 몇해 뒤엔 어마어마하게도 국회 의원으로 뽑혔다.

명호 양반은 아버지 오봉 선생을 닮아서 다시 두문불출을 하다시피 구겨지고, 아들 가운데서 제일 똑똑하다고 하던 막내도 결국 반저충이가 되어 어딜 돌아다니기만 했다.(p.217.)

해방이 되어도 끌려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친일과의 집안은 승승장구하고 학병을 피해 달아났던 막내아들은 여전히 또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 친일 세력이 정리되지 않고 득세하고 있다는 그 문제 의식 속에서, ‘여자 정신대’에 나갔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다.

늘어서 임종을 맞이하려는 가야부인을 처음에 제시하고 그 가야 부인이 살아온 일제시대와 해방 후의 세월을 돌이켜 배치한 뒤, 적을 가상한 훈련 포성이 울리는 가운데 수라 부인이 눈을 감는 소설의 구도는 이 소설에서 다루는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며 한반도 내의 적을 가상한 훈련이라는 것에서 분단의 문제까지 상징한다.

1966년 다시 작품 활동을 시작한 김정환은 일제 말기의 민중의 수난과 친일에 앞장 선 사람의 면모를 그리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역사 의식, 이루어지기는커녕 해방된 땅에서 오히려 더 득세하는 형국과 ‘개발’을 내세운 독재에 대한 비판 의식은 김정환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서로 맞닿아 있는 문제였다.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제국주의자와 거기에 편승하여 자신의 이익을 꾀했던 친일파에 대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작가로서의 의무는 그 이전 누구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던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에까지 묘사의 붓끝이 이르게 했던 것이다. 이 문제 의식은 일본군 장교 출신으로 개발 독재를 밀어붙이는 박정희 정권이 ‘유신’이라는 일본색 짙은 구호로 개인을 억압하는 것이 극에 달하던 시절에 그것의 이면과 역사성을 파헤치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수라도」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 성노이었고 그 문제의 현재성을 묻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반면, 그 현재 진행형의 문제를 파헤쳐 들어가면서 제국주의가 한국 여성의 삶에 드리운 그늘을 두루 밝혀 보인 것이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이다.

4.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성과 현재성: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

1) 처녀징용과 인력수출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는 다음과 같은 서두로 시작된다.

어떤 문예평론가가 나를 평하기를 체험하지 않은 일은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거니와, 사실 나는 그물을 가지고 구름을 잡는 듯한 이야기에는 자신이 없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먼 옛날의 인류 생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도처에서 열심히 고분을 파헤치듯이, 나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진실의 한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여름 강원도의 탄광지대를 몇 군데 돌아다닌 일이 있다.(p.445.)

그래서 그 탄광지대의 어느 집의 딸이 오끼나와 섬에 사탕수수를 베는 계절 노동자로 나가 있으면서 집에 보낸 편지에 몇 가지 자료 조사를 보태어 독자에게 소개한다는 형식이다. ‘오늘날의 진실’을 조사하고 쓰는 것이 자신의 창작 방법이라는 것이다. 소설은 처녀 복진이가 화자이다.

복진이를 비롯한 친구들은 전라도와 강원도의 탄광촌 출신 처녀들을 모아 일본에 계절 노동자로 알선해주는 우리 나라 재단 법인인 무슨 ‘기능협회’의 소개로 ‘짐덩어리’ 처럼 배에 실려 일본으로 왔다. 그런데 이 처녀 모집에 다들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데서 ‘정신대’가 우리 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남겨 놓은 상처를 가늠하게 한다.

어머니께서는 그때 대동아 전쟁 당시에 여자 정신대라 해서 우리 나라 처녀들을 강제로 끌고 가던 애길 하시면서 몹시 걱정을 하셨지만 이번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니깐 안심하세요. 사탕 수수를 베는 일이에요.(p.445.)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처녀 모집이란 곧바로 처녀 공출을 연상하는 역사적 경험이 이 글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다. 실상 이 작품의 창작 동기는 1970년대 남한사회에서 이루어진 인력 수출이니 기생 관광이니 하는 사태를 보면서 일제 말기의 ‘정신대’를 떠올리고 그 연관성을 찾아간 것이 아닌가 한다. 복진이가 돌아다닌 오끼나와의 길목에는 “강장제 고려 인삼 달여 먹고 기생파티 즐겨 보지 않으시렵니까?”라는 광고지가 붙어 있었다. 1965년의 한일협정으로 굴욕적인 한일 관계가 맺어지고 다시 한국 여성들이 일

본 남성의 성욕 해소의 도구가 되는 현실에 직면하여 작가는 거꾸로 과거로 올라간 것이다. 물론 지배자들은 그것과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역사적으로 본다면 지배자가 여성을 강제로 동원하여 수탈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없는 집 딸애가 공부를 잘 하면 대학을 가겠어요 뭘 하겠어요. 무슨 올림픽에 나가서 입상을 하니까 국위를 선양했느니 대한의 딸이니 뭐니 하고 야단들이더군요. (……) 그러니까 대한의 딸이 되려거든 저 좋아하는 배구라도 실컷 해보라고 그러세요. (pp.445~456.)

1973년 경 한국 사회에서 여성단체가 기생관광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당시의 문교장관이란 사람이 일본을 여행하면서 “한국의 딸들은 애국심이 많아 달러를 벌기 위해 몸을 바친다.”고 했다고 한다.²¹⁾ ‘기생관광’을 둘러싼 논란에서 일제 말기 여성에게 천황에 대한 ‘정신(挺身:대의를 위해 몸을 바침)’을 요구하던 말과 똑같은 말을 자기 민족의 여성에게 장관이 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대한의 딸’ 운운하는 국가주의적 여성관에 대한 조소적 시술이 들어간 것이다.

복진이가 일하는 집주인 하야시는 일제 말기 북해도의 탄광에 징용된 경험이 있고 그의 아들 다께오는 오끼나와 본토에 있는 미군기지 반환투쟁에 가담한 인물로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으로부터 한국에서 온 처녀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때로는 동정한다. 다께오에게서 복진이는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에 대해서 듣는다.

“그에 비하면 그래도 너희 나라는 많이 발전을 한 셈이지. 열두 살부터 마흔 살까지의 처녀미혼녀들을 무려 20만 명이나 여자 정신대란 이름으로 끌고 와서 군

21) 공덕귀, 『나, 그들과 함께 있었네』(여성신문사, 1994), p.184.

수공장 노무자로 일본 군인 아저씨들의 오물받이로 상납했더랬는데, 지금은 처녀들이 이렇게 달래를 벌기 위한 인력 수출에 동원되고 있으니까 말야.”(……) 하지만 “한국 처녀 한 사람이 하루에 일본 군인 몇 사람을 상대해야 됐는지 알아? 자그마치 3백명 풀이래, 3백명!”하는 데는 분하고 창피해서 낯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었지. 식민지 백성들이었으니까.”

다께오 씨는 우리를 위로하듯 이렇게 보태더군요.

어머니, 그게 정말일까요? 대동아 전쟁 때 그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일본으로 끌려 갔을까요? 다께오 씨는 자기 나라 국회 기록에도 또 공안청 자료 중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우겨됐지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군요. 하긴 우리 고향에는 정선댁 딸이라든가 함백댁 딸처럼 여자 정신대에 끌려가서 아직도 못 돌아온 처녀들이 (이젠 거의 할머니들이 됐을걸요) 있긴 했지만(……) 다께오 씨는 저희 나라 사람들이 저지른 일이 미안스러웠던지, 아니면 어디서 들은 말이 있었는지 그렇게 많은 한국인 노무자로 또 위안부로 끌고 오는데는 응당 한국인 자신들의 협조도 컸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아버지께서 늘 짚짚게 말하시던 민족반역자라든가 뭔가 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일 테죠. (pp. 453~454)

1977년의 시점에서 일본의 공식 자료와 ‘못 돌아온 처녀들’에 대한 기억을 환기시켜 그것이 ‘사실’임을 작가는 독자에게 강조한다. 또한 그것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피식민지였던 한국 내부의 친일파 - 민족반역자의 가담도 컸다는 것을 일본인의 입으로 말하게 하여 이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일본인이 일본이 죄를 인정할 정도니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 그러나 무제는 ‘민족반역자’에 놓여 있다. 실제「오기나와에서 온 편지」에서 문제로 삼는 다른 삽화들 - 기생 관광을 권하는 포스터, 노무자 수출을 둘러싼 사기극, 고아수출 - 은 일제 말기의 악랄한 식민지 지배에 협조하여 자기 개인의 이득을 취한 한국 사람들이 했던 것과 유사한 것이 다시 한국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한국 여성 복진이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듣고 보인 첫 반응은 ‘분하고 창피’ 한 것이었다. 민족적 울분과 한국 사회 일반이 가지고 있던 정조관념의 반응인 셈이다. 그러나 여성인 복진이가 일본군 ‘위안부’ 출신인 상해댁을 마주 함으로써 맹목적인 민족적 울분이나 여성에게 강요되는 수치의 감정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2) 일본군 ‘위안부’ 출신 여성과 민족 의식

복진이는 다케오의 안내로 오끼나와 본섬의 미군 상대 유흥가 고자사에서 상해댁과 뿐만 아니라 수출된 한국 고아, 속아서 계약조건과는 다른 비참한 노동에 허우적거리는 노무자 등을 만난다. 일본군 ‘위안부’ 출신인 상해댁은 지금은 일본 오끼나와의 미군 기지촌에서 술가게와 마약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녀는 자신의 일본군 ‘위안부’ 경험에 대해 일본의 책임을 물으며 **당당한 자세**를 취한다.

“일본놈들은 입이 열이라도 내게는 할 말이 없어. 누가 나를 이랬다고!”

여간 기백이 아니었습니다. (p.460.)

한국에서는 1991년 말 일본군 ‘위안부’ 경험자들이 숨기고 살던 자신의 경험을 공개 증언하면서 ‘범죄의 피해자’로 자신을 재규정했다. 이것은 동시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순결을 지키지 못한 수치스러운 여성의 책임에서 식민지 지배를 통해 여성에서 성적 강제를 자행한 일본 제국주의와 남성들의 범죄로 문제를 보는 틀 자체를 바꾸어 놓은 것이다.²²⁾ 그런데 이러한

22) 일본에서 전쟁에 참가했던 군인들의 회상기에 이미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는 이야기되고 있었으나 그 이야기 방식은 전쟁 중에는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남성 중심적인 것이었다. 이후 1970년대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센다 카코우의 글도 동정받아야 할 불쌍한 사람들로 대상화 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991년 12월의 갑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범죄’의 책임을 묻는 일본군 ‘위안부’ 자신의 시선이 확보되었다고 한다. 우에노 치즈코, 앞의 책.

인식들의 전환을 이미 1977년의 김정한의 소설에서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여기에 이 작품의 여성 문학적 성취가 있다. 상해택은 일본의 범죄를 물으면서 동시에 유사한 행위를 자행하는 한국 정부의 책임을 추궁해 들어간다.

“한국에서 실려 온 고아야. 왜 처녀들도 그런 소문은 들었을 텐데? 무슨 개발 공사라든가? - 한국에는 왜놈의 ‘개발’이란 이름이 붙은 단체가 그렇게 많아? - 아무튼 그런 장사단체가 한국에서 고아 백 여 명을 싣고 와서 이곳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한테 돈을 많이 받고 불법 입양을 시켰던데, 그 미군 아저씨들이 귀국할 때 같이 데리고 갈 수속이 미처 안 되어 그냥 길가에 버려두고 갔다나. 여긴 그런 얘기 거지들이 우글우글하다니까. 언젠가 신문에서, 한국보사부란 데서 그런 짓들을 한 회사 책임자를 수사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한 기사를 읽은 적도 있지만 저렇게 돌아다니다가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물에 빠져도 죽고 그저 그런 거지 애들이지 뭐. 귀 여운 ‘우리의 애기들’ 이 말야. 요 며칠 전만 해도 기지 앞 산호초에 걸려 있는 그런 애의 시체를 본 사람이 있었다던가……”

‘우리 애기들’ 라는 말에서 상해택은 이 문제를 민족의 문제로 보고 있음이 드러난다. 작가는 한국의 피지배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제 말기와 1970년대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다. 당당한 일본군 ‘위안부’ 출신자를 1977년의 소설 속에서 만나는 신선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당당하게 그런 작가의식을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숨겨야 할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가해자 일본을 고발하고, 그런 일을 아직도 시정하지 못하고 개발이나 외화벌이 라는 명목으로 기생 관광이나 고아 수출을 자행하는 한국 정부, 한국 사회를 비판하는 준거로서 작동한다.

김정한의 누구보다도 선명한 민족의식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자민족 여성의 정조를 지켜주지 못한 남성의 부끄러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청산되지 못한 과거가 현재에도 작동하고 있는 한 본보기로 보여주며, 이런 시

각이 그녀를 **당당한 인물로 묘사하게 하는 것이다.**

3) 한국과 일본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는 일본 내부 식민지라고 자처되는 오끼나와에서 미군 기지 반환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 남성과 인력수출된 한국 여성, 외화벌이로 팔려온 한국고아와 일제 말기 '제국의 성전에 복부하는 영광을 안았던' 일본군 '위안부' 출신 상해댁이 서로만남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관계,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에 관한 생각거리를 제기한다.

우선 작가 김정한이 무조건하고 민족의 잣대로 사태를 평가르는 맹목적 민족의식의 소유자가 아님을 보여준다. 일본에서 보내온 편지 형식을 취하고 있고 일본인 다케오의 입을 빌어 우리의 역사를 알게 하는 이 작품은 「산서동 뒷이야기」(1971)와 더불어 '한국 민중에 대한 기이한 자기 비하'를 보여준다고 비판받은 바 있다.

작가는 과거를 과거로서 묻어두지 않고 한일 두 나라의 민중운동의 현재까지 점검하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부분에서 발생한다. 박노인(「산서동 뒷 이야기」의 주인공)은 일본의 개광을 부리워하며 일제시대에도 엄존했던 농민조합이 철저히 분쇄된 한국의 현재를 부끄러워 하는 것인데, 한일 두 나라의 강렬한 민족주의의 충돌을 넘어서 민중에 기초한 국제적 연대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이 작품의 선한 의도는 여기에 이르러 그 초점을 잃고 만다. 아까운 일이다. 이러한 결 함은……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에서도 한국 민중에 대한 기이한 자기 비하 형태로 비슷하게 복제된다.²³⁾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김정한의 초점은 잊혀져 가는 과거의 이야기를 증언하고자 하는 욕망이며,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한 경고이다. '민족

23) 최원식, 「90년대에 다시 읽는 요산」, 「작가연구」4, pp.23~24.

반역자'들에 대한 분노와 그들을 청산하지 못한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이다. 김정환 작품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청산되지 못한 역사의 문제이다. “성도 이름도 뺏기고 가족이랑 이웃 사람들이 수십 만 명이나 징용으로, 정신대로 끌려가 죽고 병들고 했어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시시덕거리게 마련인 우리 나라 일부 젊은이”(p.449.)들에게 그 역사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이다. 해방되었다고 하는 데도 여전히 왕년의 친일파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울분이 이 작품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이다.

“쓸개빠진 타협과 눈물이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해!”(p.461.)

이 문제들에 대한 작가의 결론이다. 쓸개빠진 타협이란 한일협정을 염두에 둔 표현일 것이다. ‘돈 몇 푼에 민족적 자존심을 팔아치웠다’고 당시에도 의식 있는 이들의 반대를 불러일으켰던 일이 그대로 연장되고 있다는 것. 자기 민족의 여성과 아이들을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팔아먹는 민족 내부의 반역자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것이 단지 ‘자존심’의 문제일 뿐 아니라 정신적 물질적인 구체적인 피해를 외면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되었던 일과 유사한 사태가 자기 민족의 정부에 의해서도 저질러지고 있으며, 그러므로 내부의 친일파를 청산하는 것이 더 큰 과제라는 인식을 깔고 있다.

실제로 이들 친일파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기에 역사 속의 친일의 문제는 언제나 금기의 대상이었다. 친일 문제를 입에 올리는 것이 빨갱이로 몰렸던 ‘반민특위’ 해체의 경험 이후 자칫 친일파 청산은 권력을 가진 정부에 도전하는 것이고 그것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주장이라는 것이 해방 후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억압적 정서였다.

그리고 일본에서 보낸 편지라는 형식을 통해 이 작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1990년대에 발전하고 대중화되는 경로를 선취하고 있다.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처녀들’의 행방을 늘 마음속으로 뒤쫓고 있던 윤정옥 선생이 일본 사람이 쓴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오끼나와 등지를

답사하여 생존해 있는 일본군 ‘위안부’ 들에 대해 신문에 발표한 것이 여론을 불러 일으켰고 이미 기생 관광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던 기독교 여성 단체 측과 함께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²⁴⁾

5. 결론

이상의 김정한의 작품의 고찰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일본 제국주의와 여성의식이라는 관점에서 「수라도」를 분석해 본 결과, 「수라도」에는 민족 의식과 여성의식이 조화를 이룬 가운데 유교적 가부장제를 극복하고 자율적인 여성 주체로 성장하는 경향이 담기게 되었다.

둘째,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묻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60년대, 70년대의 김정한 작품에서 이에 대한 강력한 고발과 문제제기가 보이며 그것을 일본군 ‘위안부’ 여성의 눈으로 보았다.

셋째, 90년대 이전까지 유독 김정한만이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은 그가 가진 남다른 민족의식에 연유한다. 다른 작가들도 이 시기 독재 정권의 지배를 받는 남한 사회의 반민주 성, 반민족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근대화’라는 명목으로 개발이 낳은 폐해에 대해서도 민감 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단지 현재 문제로 제기된 부분만을 보았을 뿐 그것을 과거와의 관련 속에서 읽어내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김정한은 1908년 생으로 해방 당시 38세이기에 그 시대를 직접 보고 겪은 사람으로서 증인, 「파수꾼」의 책무를 작가로서의 자신에게 부과했다. 일제말을 배경으로 친일 반일의 문제를 제기하는 작품을 여러 편 쓰고, 그 연장 선 위에서 그가 작품 활동을 하던 당대의 반민주적인 행태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정한이후의 세대들도 남한 사회

24) 「여성과 사회가 만난 사람」, 앞의 책.

의 반공 이데올로기와 그에 기반한 독재 정치를 문제삼지만 세대상 이들은 6.25로부터 출발한다. 즉 유년의 원체험으로서 해방 후의 좌우 갈등과 6.25의 비극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유년의 상처로 하여 문학의 출발점을 삼는다. 그 이전의 친일 반일의 문제는 체험이기보다는 역사였다. 씌어지지 않은 역사 속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작가들 눈에 띄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친일파 문제를 다루고자 마음먹은 작가에게서 처음 이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침묵이 단지 여성 억압적인 정조 관념 뿐만이 아니라 친일파가 여전히 득세한 현실의 억압이 침묵을 강요한 측면이 크다는 것을 밝혀 보았다. 한국 사회에서 친일파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이 문제에 첨예한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던 박정희 정권이 끝난 이후이다. 그 전에 김정한이 지속적으로 일제하 친일파 반일의 문제, 그리고 해방후의 친일파 청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현재적인 문제성을 가지고 제기되었다. 일본, 미국과 한국의 관계 속에서 친일 반공 독재로 이어지는 한국 사회의 역사와 현실을 보았을 때 작가 김정한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민족주의와 국제주의를 함께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 필자 :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Abstract

Gender and Nationalism in Kim Jung-Hahn's Novels

Lee, Sang-kyung

Kim Jung-Hahn is the most famous writer in 1970's Korean literature. It is very important to analyse the correlation between gender and nationalism in the Kim's works like *Surado*(1969) and *A Letter From Okinawa*(1977), because he is both a nationalist and a feminist.

Kim's texts tell us that Korean women construct self identity resisting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Madame Gaya (the heroine of *Surado*) was a good daughter-in-law. She conducted the ancestral rites and received guest cordially very well. But when her father-in-law prohibited her from building the buddhist temple, she ran away home and built the temple by herself. The temple became a place of refuge where Korean women prayed for her husband, son and daughter's coming back safe from Japanese recruiting.

Kim's texts, perhaps more than the works of any other writer in this period, represent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n relation to the nationality, class and gender.

As a nationalist, Kim accused Japanese imperialist and the pro-Japanese Korean of the policy of assimilation to annihilate the identity of Korean people in the last days of the Japanese domination. At the same time, as a feminist, he accused of recruiting and victimizing Korean women as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s.

He recognized the relation between nationalism and gender as not exclusive but correlative.